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0호 [주제 제25243호] 주제 105 (2016)년 4월 9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피끓는 실장을 담중양  
위원회의 뜨락에 이어  
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  
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날에날  
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질풍노도처  
나아가고 있는 격동적  
인 시기에 국방과학부  
문에서 핵무력을 더욱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승리가 이룩  
되였다.

천만대오를 이끄  
시고 70일전투의 앞장  
에서 승리의 통장훈을  
불려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민족의 천만  
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거대한 사변  
들을 다발적으로, 헌법  
적으로 확신성있게 마  
련해가고 있는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  
은 자력자강의 무기를  
풀어쥐고 고심어린 힘  
과 헌신으로 새형의 대  
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를 연구제작하고  
시험에서 완전성



통어져나왔다.  
시험결과 국방과학  
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식으로 설계제작  
한 새형의 대륙간탄도  
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  
가 모든 과학기술적지  
표들을 만족시키았다  
는것이 확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로  
동당 제7차대회를  
주체적 국방력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려  
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  
어나가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데서  
또 하나의 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대성  
공으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해에  
는 핵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보다 위력한

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형의 대  
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지상  
분출시험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고  
당 제7차대회준비사업과 70일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도록 바쁘신 속에서도

본소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여 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상 리만전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  
인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정식  
동지,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경  
대장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

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  
하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지 상분출시험에 참가한 일군들  
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방공업을 최  
첨단과학기술의 토대위에 올려세우시  
기 위하여 커다란 헌신과 바쳐가시며  
기적파 위훈으로 힘 있게 떠밀어주시는

촛구치는 적정을 금치 못하였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지 상분출시험은 새로 설계제  
작한 발동기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진행  
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천둥같은 폭음을 떠뜨리며 대 출력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국방력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최기적인 사변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 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오늘의 대승리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의 제일 제현자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호의 둥요 없이 자기 흥만 믿고 일떠서는 군센 의지의 소유자, 자강력의 강자,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높이 평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에 보다 위력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든 우리의 타격권안에 두고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미제의 가증되는 핵 위협과 전횡에 대처하여 핵 공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과 핵무력건설구상을 높이 밟들고 무궁무진 한 창조적 힘을 총폭발시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무기, 주체란연구개발과 생산에서 다계단으로 벤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최고사령부의 핵병기창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천인공노할 핵전쟁연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사상최대, 사상최악의 핵전쟁연습을 날조선에서 헌금 감행되고 있다.

미국의 모든 학살인장비를 품수작전부대에 흉증중증 속에서 강행된 전합지휘소운현인 《기리풀브》 학동군사연습은 막을 내렸지만 실동훈련인 《독수리 1·6》 학동군사연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과의 핵전쟁연습은 이 학동군사연습이 우리 학회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는 대로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보다 며칠 전한 것은 조선인민의 천성자원들이 이번 핵전쟁연습을 우리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실장, 천만군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밝혀주는 찬란한 태양을 거닐한 국악무도한 범위로 도시현에 중점을 두고 통계적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있다.

오늘 같은 날은 나라들이 땅과 또는 다른 형태의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지도부 《제거》에 옥적이 있다는데 대로 학교하면서 무지하게 강행하는 연습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독 미국과 남조선과의 핵전쟁연습이 약합하여 벌이는 학동군사연습뿐이다.

미제와 남조선과들은 이미 투수작전부대들을 통원하여 지상과 해상에서 《폭풍내심내폭진》과 《평양침령작전》, 《참수작전》 등을 강행하였다. 이어 미제의 부주장을 받은 인간쓰레기 학동군사연습과 폐단은 풍중에서 우리의 천만군민이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언제나 순결한 풍경의 미움을 얻고 사는 당시상황의 청투성이 학동군사연습과 함께 《정밀타격훈련》이라는 핵전쟁위기를 저지르렀다.

천하무도한 이 도발적 행동은 우리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헌신과 열정에 대한 공물적인 도전이며 우리 학회국에 대한 공물적인 선전포고이다.

피가 거두고 속에 하고 치가 염리세 하는 국악한 범죄를 저지른 미제와 박근혜역적무리에 대한 천만군민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보복의 열기가 하늘과 달고 있다. 천천히 원수 미제와 남조선과들의 도발을 주로도 울고 들파서 좋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학교부동한 의지이다. 최첨단핵력수단들을 그려낸 갖은 불의 학동군사연습이었다.

예 위용을 맹치고 있는 우리 학회국이 적대 세력들의 천하무도하고 극악한 불량충짓이 국도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 말방을 끼고 앉아있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제가 남조선에 끌어들인 파시성, 위험성의 출한 핵력수단들은 우리 학회무력이 틀어 죄웠던 험난한 태양을 거닐한 국악무도한 범위로 도시현에 이어난 학동군사연습이 시진으로 진행되는 사소한 응집이더라도 나타난다면 주제 할 것이다. 학군으로 된다는 것을 두루두리 학동화주고 있다.

미국은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조성된 최악의 학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과의 핵전쟁위험에 대한 확신에 있다.

미국은 조선정령형장군의 링크가 미르기도 전에 우리 학회국을 겨냥한 학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아 조선만도제로 학동군사연습에 물이 달아온 정화파의 주법이다.

이느 나라 어느 지역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벌려놓았던 1·6 조선만도제로 미제와 남조선과의 핵전쟁위험에 대한 확신에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끌어들인 파시성, 위험성의 출한 핵력수단들은 우리 학회무력이 틀어 죄웠던 험난한 태양을 거닐한 국악무도한 범위로 도시현에 이어난 학동군사연습이 시진으로 진행되는 사소한 응집이더라도 나타난다면 주제 할 것이다. 학군으로 된다는 것을 두루두리 학동화주고 있다.

미국은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

미제는 학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풀고 가족을 헤친다. 학동군사연습을 통해 일념으로 가슴을 끌고 있다